

전남대 총장 직무대행 체제 전망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임명 지연...1-2주 늦춰질 듯
대학측 “국정 상황 엄중 탓...임명절차엔 문제 없어”

전남대학교 차기 총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당분간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5일 전남대에 따르면 현 정병석 총장의 임기가 오는 13일 종료되나 새 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일정 기간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는 총장 임명절차가 1-2주 정

도로 늦춰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차기 총장 임명이 지연될 경우 부총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전남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등 각종 현안으로 국정 상황이 엄중한 시기여서 국무회의 일정도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인사 검증까지 마무리되는 등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졌던 총장 후보자의 연구

윤리 위반 의혹과의 연관성에도 선을 그었다.
전남대 관계자는 “전남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검증 결과, 임용 후보자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정됐고, 연구윤리 검증도 문제없음을 확인했으며 교육부 등에도 소명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기에 맞춰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다소 아쉬운 면은 있지만 최근 내부적으로 직원 인사도 이뤄진 만큼 단기간 총장 공백을 겪게 되더라도 대학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남대는 지난해 11월27일 차기

총장 후보로 1순위 정성택 의대 교수와 2순위 허민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를 교육부에 추천했다.
국립대학 총장 후보는 해당 대학이 2명을 추천하면 인사 검증을 거쳐 후보자 제정,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은 순위와 관계없이 두 후보 중 한 명을 임명한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1순위 후보가 임명돼 전남대 차기 총장으로 정성택 교수가 낙점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현 정병석 총장은 오는 13일 별도의 이임식을 갖지 않고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차기 전남대 총장 임기는 4년이다.
/최권범기자

동신대, 정시 합격자에 장학금

동신대학교는 2021학년도 정시 모집 합격자들에게 최소 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동신대는 오는 7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정시 모집 가군, 다군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
동신대는 정시 모집에 합격한 신입생들(한의예과·간호학과 제외)에게 최소 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면학장학금과 최초합격자 Plus 장학금은 수능 성적과 학생부 성적에 따라 지급한다.
수능 4개 영역의 평균 3.75등급 이내 학생에게는 4년간(8학기) 등록금 전액을 감면하고 학기당 50만원의 학습보조비를 4학기 동안 지급한다.
학생부 반영 과목 성적이 평균이 1등급 이내인 학생은 2학기 등록금 전액 감면, 4학기 동안 학기당 40만원의 학습보조비를 받는다.
/최권범기자



한파 속 겨울 미나리 수확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강추위가 시작된 소한(小寒)인 5일 나주 노안의 한 미나리밭에서 인부들이 겨울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김영근기자

광주시교육청, 새해 6대 정책과제 제시

장학금 교육감 신년 발표회...학생 주도 교육 등 추진

장학금 광주광역시교육감은 5일 “함께 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학생이 배우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천하는 미래 교육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 비대면 신년 발표회를 통해 “새해 광주교육은 그동안 이룬 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교육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학생 주도 교육 확대·교육격차 해소 ▲학교 안전망 구축 ▲기후 위기 대응 ▲민주시민교육·문화예술 교육 강화 ▲미래인재 육성 ▲학교 자치 영역 확대·교원 역량 강화 등 여섯 가지

북구, 음식점 위생·친절 우수업소 5곳 선정

광주 북구가 관내 모범음식점 5곳을 우수 업소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올바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총 89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실천, 영업장 위생 청결 상태, 친절 서비스 등에 대해 평가했으며 음식문화 개선추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 업소 1곳과 우수 업소 4곳을 선정했다.
최우수 업소로 선정된 황솔촌(운암

동)을 비롯해 오얏리돌술밥(두암동), 해담촌(두암동), 올능이능이버섯백숙(용봉동), 마중물추어탕 용봉점(용봉동) 등 5곳은 음식점 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김동수기자

오늘의 날씨

지역 날씨 최저/최고/인

인전

서울

대전

전주

목포

흑산도

제주

춘천

강릉

도도

여수

여수

부산

해돋이 07:42 해질 17:35

달돋음 --- 달짐 12:21

생활정보지수

나들이 40

마스크 챙기세요

빨래 20

잘 마르지 않아요

세차 20

급하지 않으면 미루세요

운동 60

실내운동 즐겨요

지역	강수확률(%)	지역	만조	간조
광주	30-30	목포	07:05	00:04
목포	30-30		19:37	12:18
순천	10-20		01:54	07:56
여수	10-20	여수	14:22	20:39

서해 남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 북동-동/0.5-1.5m

오전 먼바다 ☉ 북서-북/1.5-2.5m

오후 앞바다 ☉ 서-북서/1.5-3.0m

오후 먼바다 ☉ 북서-북/2.0-4.0m

남해 서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 북서-북/0.5-1.0m

오전 먼바다 ☉ 북서-북/2.0-3.0m

오후 앞바다 ☉ 서-북서/1.0-2.0m

오후 먼바다 ☉ 북서-북/1.0-2.5m

주간날씨

전라광주

서울경기(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1월 7/목 ☉ (-8/-6) ☉ (-15/-11) ☉ (-12/-6) ☉ (-13/-8) ☉ (-11/-6) ☉ (0/0)

8/금 ☉ (-12/-5) ☉ (-17/-10) ☉ (-14/-4) ☉ (-16/-8) ☉ (-14/-5) ☉ (-1/1)

9/토 ☉ (-12/-2) ☉ (-15/-5) ☉ (-12/-1) ☉ (-15/-4) ☉ (-12/-1) ☉ (1/3)

▶ 날씨안내 : 국민일보131

남구청소년수련관에 창의·진로체험 공간 조성

오는 4월까지 기능보강 공사

광주 남구청소년수련관이 창의·진로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남구는 5일 “청소년 수련활동의 거점 공간인 남구 청소년수련관에 창의·진로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관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노후 시설을 정비하는 기능보강 공사를 오는 4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남구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공사가 오는 18일부터 4월17일까지 3개월여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공사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11억 여원으로, 남구 청소년수련관 내 공간 재구성하고 수련활동에 필요한 시설 정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능보강 공사에 나선 이유는 지난 2003년 청소년수련관 개관 이후 시설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코딩 교육을 비롯해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 등 최신 트렌드를 접목한 체험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낡고 오래된 배관을 교체해 시설은 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아곳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의견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남구 청소년수련관은 창의·진로체험을 비롯해 각 층별로 다양한 주제를 갖춘 청소년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우선 2층의 테마는 ‘만남의 광장’으로 바리스타 진로체험 프로그램실과 쉼터, 상담을 겸한 휴게실이 조성된다.
3층은 ‘play zone’ 테마에 따라 4차 산업과 관련한 AR 체험 및 코딩 체험실 등 창의·진로체험 공간과 코인노래방, 댄스 동아리실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된다.
4층은 ‘educate zone’으로 방과후 교실과 공부방, 평생학습 프로그램실, 소강당 등 학습활동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고, 지하 1층은 수영장 이용자 편의를 위해 무인발권기 및 도난방지시설과 1층에 배치했던 안내데스크를 이전해 원스톱 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 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 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관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건강한 남도의 숨결이 담긴 문화관광형 시장,
여기는 양동시장입니다!

1910년대에 광주교 아래 백사장에서 달마다 2월과 7월에 장이 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인 1940년, 신사 주변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장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69년 12월 이전에는 시영시장으로 운영되다가 그 후부터 민영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1972년에 시장 옆에 북개상가가 생겼고, 지금은 현대적인 시설로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산물, 수산물, 공산물, 기타 물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340여 개 있습니다.

*양동시장은 특히 제수용품이나 혼수용품으로 유명하며 4월~9월에는 첫째·셋째 주 일요일이 정기휴일이고, 10~3월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시장구분 : 상설시장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 238
개설일 : 공식개설일 1973년

·점포수 : 340곳
·시장면적 : 10,563㎡

·주요취급품목
- 생식물(야채, 청과, 생선), 가공식품(빈찬, 젓갈) 등
◆양동시장 상인회 : 062-366-0884

양동시장 둘러보기

건강한 남도의 산지 특산물수산물

원산지표시 전국 우수 전통시장

인형남자는 시장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주광역시 서구
GWANGJU CITY SEOGU

문의 : 062)650-2099

CMYK